화두 챙기고 百折不屈 의지 가지라

〈백절불굴〉

조계종 종정 진제 스님

一條 杖橫靑天(일조주장횡청천)하니 敎外別傳一乘傳(교외별전일승전)이라.

正法妙心眞實相(정법묘심진실상)은 描也描不成(묘야묘불성)이요 畵也畵不也(화야화불야)로다.

한 막대기 주장자가 푸른 하늘을 비끼니 49년 설(說)한 밖에 달리 일승법(一乘法)을 전함이로다. 바른 진리의 법, 묘한 마음, 참되고 실다운 모습은 모방할래야 모방할 수가 없고 그릴래야 그릴 수 없음이로다.

금일은 정유년 동안거(冬安居) 해제일(解制日)입니다.

혹한(酷寒)의 삼동구순동안 세간(世間)과 단절하고 산문(山門)을 폐쇄(閉鎖)하고 정진(精進)하고 정진한 것은 오직 자신의 본성(本性)을 밝히기 위해서였습니다.

금일 해제일이 도래하여 결제 때 가졌던 결연(決然)한 의지로 정진하였다면, 눈 밝은 안목자(眼目者)가 출현해서 대장부의 활개를 쳐야 할 것이나, 그렇지 않다면 삼동의 안거를 돌아보고 점검하여 견성에 대한 다시 각오를 다져서 바위처럼 움직이지 말고 각자의 본참화두를 참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파도에 백번 밀려나도 다시 바다를 향해 나아가는 돛단배가 마침내 순풍을 만나 신대륙에 도착하듯이, 수행자는 번뇌 망상이 팥죽 끓듯이 일어날 때마다 화두를 챙기고 의심하는 백절불굴(百折不屈)의 의지를 가져야 만이 화두가 순일해지고 마침내 마음의 고향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화두(話頭)가 있는 이는 각자의 화두를 챙기되, 화두가 없는 이는 '부모에게 나기 전에 어떤 것이 참나인가?' 이 화두를 일상생활 하는 가운데에, 앉으나 서나, 가나 오나, 일체처일체시(一切處一切時)에 챙기고 의심해야 할 것입니다.

화두를 챙길 때는 아주 또렷하게 화두의 의심을 지어가야만 가지가지의 생각이 침범하지 못하고 혼침(昏沈)도 달아나 버립니다.

만약 털끝만큼이라도 다른 생각이 있거나 게으른 생각이 있으면 화두는 벌써 십만 팔 천리 밖으로 달아나 버리고 과거의 습기(習氣)로 인한 다른 생각이 마음 가운데 자리 잡고서 주인노릇을 하고 있게 됩니다.

그러니 모든 반연(攀緣)은 끊고 시비장단(是非長短)은 모두 내려놓고, 견성하고 말겠다는 확고한 대신심(大信心)과 불타는 대용맹심(大勇猛心)을 내어, 간절하게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각자의 화두를 챙기고 의심하여, 번뇌와 망상이 들어올 틈이 없도록 혼신의 노력을



쏟아야 합니다.

그렇게 정성껏 잡도리하다 보면 문득 참의심이 발동하게 됩니다. 그때는 보는 것도 잊어버리고 듣는 것도 잊어버리고, 시냇물이 끊어지지 않고 흐르는 것처럼 일주일이고 한 달이고 일 년이고 지속되다가, 홀연히 보는 찰나에 듣는 찰나에 화두가 박살나게 되고, 억겁다생(億劫多生)에 지은 업(業)이 빙소와해(氷消瓦解)되어, 몰록 마음의 고향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중략〉

세월이 흘러 운문(雲門)선사께서 세연(世緣)이 다해가니 제자들을 모아 놓고, 어떠한 것이 부처님의 진리의 도(道)인가? 어떠한 것이 제바종(提婆宗)인가? 어떠한 것이 취모검(吹毛劍)인가?

이 세 가지 법문을 물으셨다.

여러 제자들이 훌륭한 답을 했지만, 그 중에서 파릉(巴陵) 스님의 답이, 어떠한 것이 부처님의 진리의 도(道)인가? "눈 밝은 사람이 우물에 빠졌습니다."

어떠한 것이 제바종(提婆宗)인가? "은쟁반 위에 눈이 소복히 쌓였습니다."

어떠한 것이 취모검(吹毛劍)인가? "산호(珊瑚)나무 가지가지에 달이 주렁주렁 매달렸습니다"라고 대답하였다.

이에 운문 선사께서 이 답처(答處)를 듣고 매우 기뻐하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셨다.

"내가 열반(涅槃)에 든 후, 너희들은 기일(忌日)에 제사상에다 갖가지 음식을 차리지 말고 항상 이 세 마디 법문을 일러주길 바란다."

시회대중(時會大衆)이여!

이 법문을 안다면 한 산중의 방장이 될 자격이 있음이라. 답할 자가 있으면 답을 가지고 오너라.

필경(畢竟)에 진리의 일구(一句)는 어떠한가?

與奪自在能幾幾(여탈자재능기기)아

天上人間無等匹(천상인간무등필)이로다.

주고 빼앗는 자재의 기봉을 갖춘 이가 몇몇이나 될꼬. 천상세계와 인간세계에 짝할 자가 없음이로다.

간택하는 마음만 허물이 된다

태고종 종정 혜초 스님

지난 겨울은 무척 추웠습니다. 조계산에도 백설이 분분했으니, 겨울의 북풍한설이 제법 이 노옹의 살갗을 차갑게 했었습니다. 이제 무우전 앞마당 매화가지에 꽃이 피니 드디어 봄이 오는 전령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동안거 해제 법문은 조주 고불의 지도무난(至道無難)의 활구법문(活句法門)을 한번 점검하면서 지난 3개월간 칠전에서 두문불출(杜門不出)한 납자들에게 당부합니다.

조주 스님께서 "건곤착(乾坤窄)하고 일월성신일시흑(日月星辰一時黑)이라 직요봉여우점(直饒棒如雨點)하고 할사뇌분(喝似雷奔)이라도 야미당득향상종승중사(也未當得向上宗乘中事)니라. 하늘과 땅마저 비좁고 일월성신도 일시적으로 빛을 잃는다. 봉(棒)을 빗발치듯 내리치고 할(喝)을 천둥 울리듯 내뱉더라도 선의 핵심에는 도달할 수 없다"고 일찍이 설파하셨습니다.

도(道) 깨치기는 세수하다가 코 만지는 것보다 더 쉽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조주 스님은 "도에 이르는 데는 어렵지 않은데, 다만 유혐간택(唯嫌揀擇)이라, 간택하는 마음만 허물이 된다"고 하였습니다.

해제하고 산문을 나선다고 해서 화두를 놓는 것은 아닙니다. 본분납자에게는 결제 해제가 따로 없습니다. 1년 365일이 바로 결제일이요, 해제일이니 시은을 받는 수좌들은 항상 겸손할 줄 알아야



합니다.

지나치다가 하찮은 돌멩이 하나, 풀 한 포기도 만물함령(萬物含靈)이라, 불성(佛性)이 있으니 공경하는 마음을 갖도록 합시다.

태고법손(太古法孫)들은 시시비비(是是非非)를 단절하고 종승선양(宗乘宣揚)에 매진하는 해가 되어서 불이성(不二城)에 화합의 웃음소리가 진동하기를 노옹(老翁)은 조계산 근심 없는 집에서 제불보살께 합장삼배 합니다.

허송세월 말고 오고감에 맡겨라

쌍계총림 쌍계사 방장 고산 스님

佛身 充滿盡法界(불신변만진법계)하니 有情衆生無不親(유정중생무불친)이로다. 靑山綠水說無生(청산록수설무생)하고 鶯音ㄹ 語轉妙法(앵음연어전묘법)이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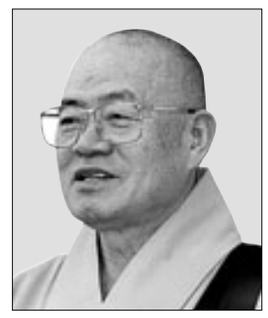
불신이 온 법계 두루 가득하니 유정중생이 친하지 아니함이 없도다. 청산과 록수는 무생법문을 설하고 꾀꼬리 소리와 제비소리는 묘법을 전하는도다.

敢問大衆(감문대중)하노니 古人(고인)이 云(운) 佛身充滿法界(불신충만법계)라 하니 具眼衲僧(구안납승)은 且道(차도)하라. 還見佛眞身 (환견불진신마)아? 良久(양구)에 "一喝(일할)"云(운) 眼橫鼻直(안횡비직)하니 全(전) 機全彰(기전창)이로다.

감히 대중에게 묻노니 고인이 이르되 불신이 법계에 충만하다하니 안목을 갖춘 납승은 일러보아라. 도리어 부처님 진신을 보았는가?〈중략〉

我若當時(아약당시)면 受抱兒稱云(수포아칭운)하되 爾便毘盧遮那來 (이변비로자나래마)아 爾便釋迦牟尼(이변노사나) 來 (래마)아 爾便悉達多來 (이변실달다래마)아 明月淸風自去來(명월청풍자거래)로다. 任運騰騰貴童(임운등등귀동) 子(자)야하고 戱弄(희롱)하면 老婆不笑而奈何(노파불소이나하)리요.

내가 만약 그때를 당했다면 아기를 받아 안고 이르되 네가 바로 비로자나가 온 것이냐? 노사나가 온 것이냐? 네가 바로 실달다가 온 것이냐? 밝은 달과 맑은 바람이 저절로 오고가네! 운에 맡겨 더등실 귀동자야! 하고 어르면 노파가



웃지 않고 어찌하리요!〈중략〉

親子棄江爭不悽(친자기강쟁불처)리오 老婆心切彼無ØV노파심절피무예)로다. 莫 舞掉虛過歲(막잠무도허과세)하고 雲山海月任意棲(운산해월임의서)로다.

친아들을 강에 버리고 어찌 슬프지 않으리요. 노파심이 간절하니 거기에는 허물이 없도다. 노를 잡고 춤추면서 허송세월 하지 말고 운산과 해월이 마음대로 오고감에 맡길지어다.

一味禪도 五味禪도 묶이지 말라

해인총림 해인사 방장 원각 스님

귀종지상(歸宗智常)선사에게 젊은 납자가 해제인사를 오니 물었습니다.

"어디로 가는가?"

"여러 지방으로 오미선(五味禪)을 배우려 갑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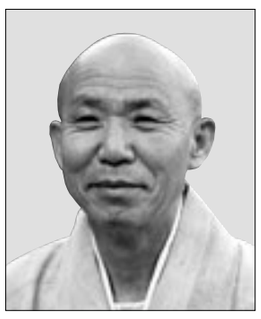
"제방(諸方)에는 오미선이 있고 총림에는 일미선이 있다. 일미선(一味禪)은 제대로 익혔느냐?"

"총림의 일미선은 어떤 것입니까?"

당나라 귀종선사는 마조도일(馬祖道一)의 법을 이었으며 강서성 여산(廬山) 귀종사를 중심으로 선법을 펼쳤습니다. 해제를 앞두고 귀종선사께 어떤 젊은 납승이 찾아와 일미선과 오미선에 대한 문답을 주고받았습니다. 일미선은 목적지를 곧장 가리키는 것이요. 오미선은 목적지에 가기 위한 경유지를 함께 안내하는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일미선은 직절지(直截智)요 오미선은 방편지(方便智)입니다. 또 중생을 이롭게 함에 '법도가 제대로 서 있는' 일미선을 때에 따라 적절하게 방편을 사용하는 것이 오미선이라 하겠습니다. 따라서 일미선이 없는 오미선은 삿된 도가 되는 것입니다. 일미선을 통해 오미선으로 들어가야 자신과 타인을 모두 이익 되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금으로 여러 가지 모양의 물건을 만들더라도 그 물건은 모두 금인 것처럼 설사 일미선이 모양을 바꾸면서 오미선이 된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일미선과 결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모든 법은 동일한 본체이지만 교묘



(巧妙)한 여러 가지 상(相)들이 모여 차별된 모습을 만들 뿐입니다. 따라서 하나에 일체가 구비되어 있으므로 일체는 다시 하나를 이룹니다. 일미선을 통해 오미선을 성취하고 오미선을 통해 일미선으로 회향하는 것입니다.〈중략〉

일미선은 결제요 오미선은 해제입니다. 왜냐하면 결제 때 닦은 일미선으로 해제 때 오미선으로 회향하기 때문입니다. 만행이란 오미선을 통하여 일미선으로 들어가는 일이요, 또 일미선을 오미선에 회향하는 일입니다. 그리하여 일미선이 곧 오미선인 도리를 알 때 비로소 제대로 된 일미가 무엇인지 알게 될 것입니다.

귀종일미여연고(歸宗一味如蓮苦)하니. 차과총림기후생(蹉過叢林幾後生)고? 환유불차과자마(還有不蹉過者)아? 시출래토로소식(試出來吐露消息)하라.

귀종의 일미선은 황련과 같이 쓴 맛인지라. 총림의 후학들이 지나친 것이 얼마이던고? 그렇다면 이제 지나치지 않을 자가 있는가? 만약 있다면 앞으로 나와서 소식을 말해보라.

타성 벗어나 주인공으로 삽시다

고불총림 백양사 방장 지선 스님

掃盡從前諸雜解(소진종전제잡해)
話頭提起急加功(화두제기급가공)
一朝識破娘生面(일조식파낭생면)
虎穴魔宮正路通(호혈마궁정로통)

종전의 잡스런 알음알이 싹 쓸어버리고 화두를 급히 들어 더욱 공을 들여라.

하루 아침에 엄마 뱃속의 본래면목을 알아버리면 호랑이굴, 마왕의 궁전에 가서도 바른 길이 늘 통하리. (나옹 스님 게송)

이번 동안거에는 유난히 춥고 눈이 많이 내렸습니다. 업보가 박잡한 저는 바람에 날리는 눈처럼 정신없이 지냈습니다만 여기 모이신 사부대중들께서는 심신이 모두 평안하셨습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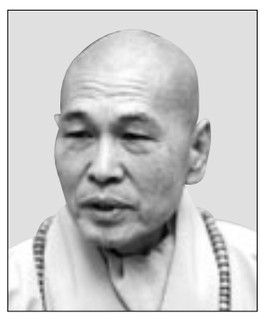
저는 예전에 하던 짓, 우리(나) 스스로가 주인공이 되는 民主(민주)라는 것을 딱 붙잡고 천하사람들을 만나 진흙소가 물 위를 걷고 大地(대지)가 허공에 찢어지는 것도 말하며 다녔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뼛속까지 스며든 한기를 이겨내고 피어난 매화향기가 평창에 가득한 것을 보기도 했고 참사람들의 모습들이 춤을 추는 것을 보기도 했습니다. 고달프긴 하였으나 세상 사람들을 하나 되게 하는 민주, 통일의 원리를 보았기에 즐거웠습니다.

저는 이렇게 겨울을 보냈습니다.

강에 가득하던 얼음이 조금씩 풀리고 산하에 봄빛이 언뜻 짐작도 되는데 봄날 아지랑이 같은 알음알이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시골의 촌로들도 한다는 가상화폐 얘기를 들었는데 이렇게 발전되어 가는데 단순한 사람은 필요가 없는 세상임이 분명합니다. 근본을 추구하는 삶에서 멀어질수록 세상에는 고통이 가득 차는데 항상 근심이 됩니다.〈중략〉

무시로 일어나고 사라지는 온갖 경계에 흔들림 없는 마음이 이 고통스러운 세상에는 필요합니다. 이러한 근원적 자리에서 활발발하여야만 이 나라 살리는, 이 겨레 살리는 실천이 나오게 됩니다. 이제 그동안의 타성에서 벗어나 우리 불자들은 참된 양심의 자리에서 역사의식과 사회의식을 살려 일단 주인공으로 삽시다. 그러한 주체적인 삶, 민주시민도 못되면서 대승보살행을 머리에 담아두면 그 괴리가 너무 커져 자기가 할 수 있는 소소한 선행조차도 못하게 됩니다. 한 계단 한 계단 밟고 오르는 長遠心(장



원심)을 냅시다.

유난히 추웠던 시절이었는데 아마 이번 봄, 아지랑이 같은 알음알이는 더욱 치성해질 것입니다 아! 헛된 생각들을 단박에 없애서 무심, 무소득의 지견으로 살아가는 돈오의 삶! 어떠합니까?

8식도 미세망상의 마구니 경계로다! 쏟아지는 비 같은 설법을 뒤로 하고 百聞(백문)이 不如一行(불여일행)! 떠나는 선방스님들 뒷모습들이 아름답구나!

반야행자여! 길을 떠나자

영축총림 방장대행 성파 스님

與君同步又同行(여군동보우동행)하며 起坐相將歲月長(기좌상장세월장)이로다. 渴飮飢飡常對面(갈음기손상대면)하니 不須回首更思量(불수회수경사량)이니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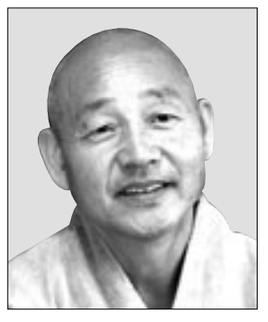
그대와 함께 걷고 또한 함께 다니며 서고 앉음에 항상하여 오랜 세월 지났네. 목마르면 마시고 주리면 먹으며 항상 서로 대했으니 머리를 돌려 다시 생각하지 말라.

총림대중이 삼동결제를 하고 포단 위에 오뚝이 앉아 잠 못 이루고 정진한 일은 늘 함께하며 범부와 성현에게 본래 구족한 한 물건을 찾고 이를 잘 쓰기 위함입니다.

한 물건을 본 대장부는 일체를 반야의 지혜로 보는 까닭에 보시를 행하면 상에 걸림 없는 법보시와 무애시를 행하게 되고, 계율을 실천하면 무생계(無生戒)를 행하며, 인욕행을 통해 묵은 빚을 모두 갚습니다. 반야지(般若智)를 구족한 수행자의 정진은 시끄럽고 고요함을 가리지 않고 순경과 역경 또한 구별하지 않으며 은애와 원수에 걸리지 않고 일체중생을 구제하는 일로 정진을 삼습니다. 반야행자의 선정은 업화의 불길에도 타지 않으며, 시정의 시끄러움도 피하지 않고, 정처의 고요함도 좋아하지 않으며 일체 삼매 속에 행원을 성숙시켜 나갑니다.

이처럼 바라밀을 실천하려면 늘 함께 하는 한 물건을 분명히 보아야 합니다. 너무도 쉽고 재미있고 신나게 실천할 수 있는 최고의 수행은 한 물건을 분명히 보는 일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총림대중이 지난 석 달 동안 화두를 들고 처절하게 정진한 이유는 한 물건을 가리고 있는 구름을 제거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제 대중은 무명의 구름이 흩



어지고 한 물건을 분명히 보게 되었으니 반야행자의 원력과 역량으로 산문을 나가야 합니다. 산문 밖에서 만나는 일체 인연은 반야행자의 원력을 세우고 실천하는 수행자로 만들어야 하고, 머무는 곳마다 청정도량이 되게 해야 합니다.

〈하략〉

지면 관계상 법어 전문을 싣지 못했습니다. 전문은 인터넷 뉴스(www.hyunbulnews.com)를 통해 보실 수 있습니다.